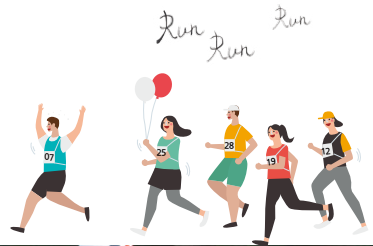


# 대한산업보건협회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 참가

글·사진 편집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5월 1일(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만여 명이 함께했다. 대회는 하프코스, 10 km, 5 km(가족 걷기 대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보조행사로는 산재예방 홍보활동, 문화 공연, 체험 이벤트, 경품 추첨식 등이 열렸다.

5월 1일 노동절(메이데이)은 128년 전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다 경찰의 난사로 사망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을 기리는 날이다.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노동절을 축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1.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들 2. 내·외빈 소개, 인사 중인 최수홍 회장 3.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6.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7.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참석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도 함께했다.

마라톤 대회는 참가자들이 '가자 한국노총과 함께, 뛰자 노동존중 사회로'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쳐 넘기는 것으로 시작했다. 10 km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출발해 남직문-잠실철교-올림픽대교-광나루 야구장 부근을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였다. 5 km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출발해 한강청소년광장-탄천-잠실자동차극장-잠실주경기장을, 하프는 호돌이 광장-잠실대교-올림픽대교-광진교-강동대교 부근을 반환해 돌아왔다. 🐾